

AUTUMN 2018 Vol. 84

또 하나의 나, 우리



지구촌 아이들의 꿈
플랜코리아



‘또 하나의 나, 우리’는 플랜코리아가 전하는 아이들의 소중한 꿈입니다.

플랜은 UN경제사회이사회와의 협의 기구로 80년 역사를 가지고
국제적 신뢰를 인정받아온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종교 · 정치 · 국적을 초월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1억6천5백만 명의 어린이와 가족 및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보호, 교육, 보건의료, 식수 및 위생, 생계지원, 긴급구호 등의 영역에서
종합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플랜코리아는 플랜인터내셔널의 한국 지부입니다.

또 하나의 나, 우리 AUTUMN 2018 Vol. 8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H스퀘어 S동 912호 이메일. kno@plankorea.or.kr 홈페이지. www.plankorea.or.kr
통권. 제84호 발행일. 2018. 9. 10 발행인. 이상주 발행처. 재단법인 플랜 한국위원회 디자인. 그래픽오션 02.3422.5612
편집. 서울커뮤니케이션 070.7633.2009



CONTENTS

04

Plan Report
새로운 말랄라를 만나다

08

아주 특별한 만남
지구촌 아이들의 꿈을 향해 슷
One Ball One Dream

10

아주 특별한 만남
꿈의 나라를 펼쳐봐

12

우리는 플랜 가족
후쿠모토 타즈야 후원자

14

사랑은 계속됩니다
학대피해아동의 아픔을
어루만집니다

16

사랑은 계속됩니다
예쁘게 웃는 아이, 지은이

18

지구촌을 간다
바다를 그려주고,
행복을 배워오다

20

지구촌을 간다
무관심에서 베푼 가슴으로,
달라진 나를 만나다

22

지구촌을 간다
안심하고 학교 가는 길,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요

24

지구촌을 간다
해피버들과 함께한
오상진의 ‘해피타임’

26

지금 만나러 갑니다
7차례 비행 끝에 만난 아이
영원히 기억될 짧은 시간

28

꿈꾸는 에세이
제 이름은 데오메티로입니다

30

고마워요 플랜
푸른 꿈의 마을,
알렉산드리아의 변신

32

꿈꾸는 아동편지

34

플랜톡

36

Plan Board

37

플랜툰

38

후원자 공간

39

Enjoy Plan

40

플랜 소식

여성 권리를 지지할 새로운 말랄라를 만나다

2014년 최연소 노벨상 수상자인
파키스탄의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이제 세계적인 남녀 평등의 아이콘입니다.
2012년 여성의 학교 갈 권리를 주장하다가
탈레반의 총격에 사망할 뻔한 말랄라가
2013년 7월 12일 유엔 본부의 청소년의회에서
연설을 한 지도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말랄라의 날'인 매년 7월 12일,
전 세계인들은 한 소녀의 역경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며 아동과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 되새깁니다.
이제 여기 또 다른 여러 '말랄라'들이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66

전 당당히 말할 거예요.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소녀들을 위해,
더 크게 이야기할 거예요.

99



성 건강 및 권리 운동가 소피

소피는 10대에 임신한 몇몇 친구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HIV에 감염되기도 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이제 24세가 된 소피는 우간다와 그 외 지역 청소년 및 소녀들을 대상으로 성과 생식 보건 및 권리(SRHR)에 대해 알리는 활동가로 성장했습니다. 최근 정부 청원서를 통해 우간다의 청소년들을 위한 SRHR 서비스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전 세계 39,000 명의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도 했습니다.

원주민 여아들에 대한 장벽을 무너뜨린 에리카

18세의 에콰도르 소녀 에리카가 벌인 캠페인 'Fighting for our Dreams'는 10대 임신의 원인을 찾고, 그 결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매일같이 1시간씩 뛰어서 등교했던 에리카는 이제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고 있고, 에콰도르 영부인과 만나 소녀의 권리 및 성에 기반한 폭력에 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총기 규제법 도입을 위해 투쟁하는 엠마 곤잘레즈

미국 플로리다 출신의 18세 소녀 엠마는 올해 미국에서 가장 끔찍했던 고등학교 총격 사건 이후 유명한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엠마는 보다 엄격한 총기 규제법 도입에 찬성하는 열정적인 운동가로, 사건 이후 지난 3월 워싱턴에서 우리의 삶에 관한 강력하고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권리를 쟁취할 때 어떠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 중입니다.

소녀와 여성을 위해 보다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아네카

성평등을 추구하는 청소년 운동가인 23세의 아네카는 도시가 소녀들과 여성들에게 안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최근 그녀는 호주 멜버른 메트로 트레인즈 앱을 통해 소녀와 여성들이 겪고 있는 성희롱과 폭행에 대해 알리고, 도시 주변을 안전한 혹은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네카는 모든 사람이 기본 인권과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지구촌 아이들의 꿈을 향해 슛 'One Ball One Dream'

골을 넣을수록 기부금이 늘어나는 특별한 승부차기 이벤트가 에버랜드를 뜨겁게 달궜다.
안재홍 홍보대사가 공을 못 막아도 함께 웃는 골키퍼로 변신했다.



플랜코리아와 에버랜드는 월드컵 시즌, 지구촌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이벤트 'One Ball One Dream'을 에버랜드 장미원 바닥 분수에서 마련했다. 이날의 이벤트는 '희망의 승부차기'로, 골키퍼로 나선 안재홍 홍보대사는 아이들이 힘껏 날린 공을 온몸으로 막으며 이벤트를 흥겹게 이끌었다.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이 이벤트는 소정의 참가비를 내고, 홍보대사 안재홍이 골키퍼로 지키는 골대에 승부차기를 통해 골을 넣으면 골인이 된 숫자만큼 에버랜드에서 후원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골키퍼 안재홍으로서는 골을 막지 못해도 좋은 일만 있는 셈이다. 물론 안재홍의 수비에 막혀 골을 넣는 데 실패한 참가자들 역시 별도로 마련된 '플랜 나눔 체험 부스'에서 미션을 수행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부스에서는 '플랜코리아 앱 다운받고 상품 받기' 및 '응원 토퍼 SNS에 올리고 상품 받기' 등 풍성한 이벤트가 마련됐다. 또한, 부

스 참가자 모두에게 나눔 뿔기를 진행해 캐릭터 상품 등 다양한 리워드를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이날 부스는 개도국 아동결연 및 관련 사업에 정기 지원을 할 수 있는 창구로도 활용됐다. 현장 아동결연 참가자에게는 다양한 선물을 증정해 쉽고 즐겁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유의 친근한 매력을 가진 안재홍은 '희망의 승부차기' 골키퍼로 온몸을 던지며 활약한 데 이어, 이밖의 이벤트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행사의 좋은 취지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안재홍은 홍보대사로서 활약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직접 캄보디아 어린이와 일대일 결연을 맺고 있는 후원자이기도 하다.

플랜코리아와 에버랜드는 매년 봄과 가을 '플랜 아트 마켓'을 개최해 수익금으로 개도국 놀이시설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꿈의 나라를 펼쳐봐

화려한 디제잉쇼와 다채로운 나눔이 함께한 특별한 이벤트

‘꿈의 나라를 펼쳐봐’가 여름날 캐리비안 베이에 흥을 돋궜다.

‘꿈의 나라를 펼쳐봐’는 개도국 아이들의 꿈이 마음껏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매년 이어오고 있는 행사다. 올해 역시 박나래 홍보대사의 화려한 디제잉이 여름 무더위 속 피서객으로 가득 찬 현장의 분위기를 단숨에 매료시켰다.

박나래 홍보대사는 이번 행사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디제잉쇼를 선보이면서 개도국 아이들의 꿈을 한 마음으로 응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더위를 잊게 하는 디제잉쇼와 더불어 현장에서는 플랜코리아의 나눔체험 부스도 마련됐다. 나눔체험 부스에서는 개도국 아이들의 꿈을 복돋아 주기 위한 특별한 캠페인이 준비됐다.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가위바위보 게임, 포토이벤트, 희망 메시지 적기, One Ball One Dream 게임, 나눔 타투 등 이목을 끄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성황리에 진행됐다. 박나래 홍보대사는 나눔체험 부스 방문자들에게 나눔 타투를 직접 붙여 주기도 하고, 개도국 아이들에게 희망 메시지를 전하며 뜻깊은 시간을 함께 했다. 행사의 취지에 따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구촌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 달라는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연예 매니지먼트사 예코글로벌그룹의 소속 배우이자 플랜코리아 홍보대사인 동현배, 공정환, 이종원 등이 함께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홍보대사 박나래의 디제잉쇼 ‘꿈의 나라를 펼쳐봐’는 매년 여름 휴가철마다 캐리비안 베이 방문자들 사이에 핫한 이벤트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일반적인 봉사나 나눔 홍보행사와 달리 흥겨운 디제잉쇼와 다양한 체험을 동시에 제공해, 의미와 재미를 모두 갖춘 행사로 평가받는다.

‘나래바’로 지인들에게 나눔을 실천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박나래 홍보대사는 내년에도 계속 ‘꿈의 나라를 펼쳐봐’를 통해 보다 많은 팬들에게 나눔 문화를 전파할 예정이다.



타국으로 떠났어도, 후원은 계속됩니다

후쿠모토 타쓰야 후원자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
지속적인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거든요.
나눔이란 지속적인 관심이 아닐까요?”

중국의 한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일본인 후원자인 그는
한국에 살지 않음에도 플랜코리아와 아동결연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인 배우자를 만났거나, 한국인 친인척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직접 플랜코리아 사무실에 방문해 후원금을 내고,
소식지와 후원 아동자료도 직접 받아가는 정성을 보였다.
그 흔한 이메일이나 외환 송금조차 이용하지 않는
독특한 후원자 후쿠모토 타쓰야와 플랜코리아의
남다른 '인연'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플랜 해외에 살면서도 이어오고 계신 플랜코리아와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어떤 일을 하시기에 한국에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후원자 중국의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광고를 통해 플랜코리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동결연을 시작했으니 15년이 넘었네요. 10년 정도 한국에 거주했고, 지금은 중국에서 9년째 살고 있어요. 한국을 떠나면서 다른 단체에 후원하던 것은 정리했지만, 플랜과는 아동결연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플랜 한국에 오실 때마다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 후원금을 내시고 아동자료를 받아 가시는데, 번거롭지 않으신가요? 혹시 플랜 사무실 방문을 위해 일부러 한국 방문 계획을 잡으시는지요?

후원자 물론 이메일로 아동자료를 받지만, 직접 받아보는 것이 좋아서 방문을 합니다. 사무실을 찾아뵙고 열심히 일하는 플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아서요. 예전에 한국에서 살 때는 지방에 거주해서 오히려 사무실 방문을 못했는데, 외국으로 나가니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휴가를 맞이해 일본으로 가는 길에 잠시 한국에 들렸습니다. 일주일 일정으로 한국 여행 후 일본 본가에 들를 예정입니다. 여행을 좋아하니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플랜 사실 한국에 거주하시는 후원자님들도 소식지나 아동자료를 꼼꼼히 챙겨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늘 사무실에 오시며 1년치 소식지를 챙겨가시는 정성도 대단합니다. 후원자님에게 플랜이란, 나눔이란 어떤 의미 인가요?

후원자 돌아가는 길에 읽어보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플랜의 활동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후원하는 아동이 속한 단체이기도 하고, 아동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인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 지속적인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거든요. 나눔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 아닐까요?

플랜 ‘플랜 일본’을 통해서도 혹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한국과 일본의 나눔 문화가 어떤 점이 다른지도 궁금해요.

후원자 한국에서 후원을 시작할 때 플랜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플랜 일본이 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플랜코리아를 통해 아동후원을 하고 있기도 하고 워낙 외국에 오래 거주해서 플랜 일본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지 그곳에서 하는 자세한 활동에 대해선 정확히 모릅니다. 한국에 10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더 깊고, 소식지도 재미있게 읽고 있어요.

플랜 오랜만에 아동성장 보고서를 받아보셨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언젠가 후원아동을 직접 방문해볼 계획은 있으신지요?

후원자 아동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항상 해외봉사활동 현장에 기회가 있으면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 활용이 자유롭지 못해서 방문하기 참 어렵네요. 만약 그 아이를 만나게 되면 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지금처럼 잘 자라라고 격려해주고 싶어요. 집안 환경이 어떤지 늘 궁금해요. 아이의 집에도 방문해 보고, 가족들도 만나보고 싶어요.

플랜 플랜코리아에 바라는 점이나 후원자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후원자 플랜코리아뿐만 아니라 후원자님들 모두 건강하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 바랍니다. 후원자님들에게 늘 좋은 일이 많아서, 플랜과 함께하는 나눔이 멈추지 않고 지속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의 아픔을 어루만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무자비한 학대를 당한 아이들.
공포 속에서도 도와 달라고 할 곳이 없었던 그 아이들의 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플랜코리아와 현대로템이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 작은 힘을 모았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꿈만 꾸길 소망하며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응원키트를 받게 될 어린 친구들이
드림캐처의 원래 뜻처럼 좋은 꿈을 꾸고,
나아가 원하는 꿈도 이루면 좋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겪은 아이들의 아픔을 생각하니
활동 내내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핑크박스에 담은 작은 선물들과 꼭꼭 눌러가며 쓴
작은 메시지가 잠시나마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현대로템 임직원-



플랜코리아와 현대로템 임직원들이 악몽을 없애 준다는
'드림캐처'가 들어간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응원키트' 만들기
봉사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학대 피해를 입고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입소한 아동들을 응원했습니다.

현대로템 임직원 20여 명이 정성스럽게 만든 응원키트
총 60개에는 직접 제작한 드림캐처를 포함해 학용품, 보온병,
양치세트, 보습로션, 쿠션 등이 들어갔습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드림캐처였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만들었다고 알려진 드림캐처는
지니고 있으면 나쁜 꿈은 잡아 주고 좋은 꿈만 남겨 준다는
의미가 있는 장신구입니다.

임직원 모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아이들의 상처를 직접
어루만져 준다는 마음을 담아 정성껏 키트에 들어갈
드림캐처를 제작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플랜코리아는 현대로템과 함께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긴급의료비 지원사업' 또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학대 아동의 단기적인 신체피해를 치료하고,
더 나아가 장기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치과와 피부과
질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게 학대피해를 입는
아동들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플랜코리아는 한창 사랑 받아야 할 나이에
학대를 당해 심신이 지친 아이들을 위해
변함없는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저에게 좋은 꿈만 꿀 수 있도록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더위 조심하세요.”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어피치 수첩을 갖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또 많은 선물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착하게 살고 다음에 커서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룹홈 입소 아동-

예쁘게 웃는 아이, 지은이

한 번도 엄마 젖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특수젖병이 아니면 물조차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은이는 누구보다 예쁜 미소를 가졌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지은이(가명, 생후 100일)는
윗입술과 입천장이 갈라진채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장애는 지은이에게서
천진난만한 미소까지 빼앗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미소에 가끔 지은이의 아픔을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엄마는 지은이가 자라며 미소를 잃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런 사례의 아이를 만난 것은 오랜만이네요.
구순구개열 중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은이의 상태는 의사 선생님도 놀랄 만큼 너무도 심각했습니다.
윗입술과 입천장이 갈라져 태어나는
구순구개열 중에서도 지은이는 가장 심각한 경우인
양측 구순구개열입니다.

지은이가 자라면서 장애는 더욱 심각해질 거라고 합니다.
코와 목젖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고 귀에까지 영향을 미쳐,
말하는 것과 듣는 것조차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성장기 내내 여러 번의 수술이 필요합니다.

“혹시 임신했을 때 잘 먹고 쉬지 못한 것이 원인인지...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서 지은이에게 너무 미안해요.”

주 3회 이상 통원 치료비와 교통비,
치아 발달이 불가능한 지은이에게
꼭 필요한 비싼 영양제...
수술비 외에도 지은이가 생활하는 데에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인 엄마에게는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지만,
아픈 지은이가 짓는 예쁜 미소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66

지은이가 자라면서 예쁜 웃음을
계속 간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을 보내주세요.

99



지은이의
웃음 지켜주기





“째주핀바래, 미얀마!” 바다를 그려주고, 행복을 배워오다

해외봉사가 결정되기 전까지 미얀마에 대한 별다른 생각은 없었다.
작은 동남아시아 국가, 여행 인프라가 덜 발달한 나라, 불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나라.
몇 번의 인터넷 검색 끝에 불안함과 약간의 두려움을 갖고 미얀마 해외봉사를 떠났다.



내가 갔던 8월은 미얀마의 우기였다.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됐지만, 가끔씩 비가 내려 더위를 식혀줬다. 미얀마에 도착해 아이들이 있는 학교로 향했다. 우리가 학교에 내리자, 아이들은 하얀 꽃 목걸이를 걸어주며 우리를 맞이했다.

동그란 눈망울을 마주하는 순간, 부드럽고 뜨뜻미지근하면서 간질거리는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몽글거렸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눈빛과 몸짓으로 소통할 수 있었다.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미소를 보고 있으니 하얀 천 위의 얼룩처럼 행복이라는 게 슬며시 번졌다.

미얀마 아이들은 바다를 볼 기회가 많이 없다고 한다. 때문에 바다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크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벽화를 통해 서라도 바다를 보여주고 싶었던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선물로 고심하며 그림을 그려나갔다.

바다에는 물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개의 다리를 가진 오징어나, 별처럼 생긴 불가사리, 파인애플을 닮은 말미잘도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싶었다. 비록 우리에게 벽화를 그리는 것이 최선이었지만, 우리가 떠난 후에도 아이들이 선생님들에게 벽화 속 생물들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며 ‘바다’와 함께하길 바랐다.

아이들은 웅기증기 모여 벽화를 유심히 바라봤다. 어둡고 침침했던 벽은 언젠간 실제로 바다를 볼 수 있다는 아이들의 바람으로 가득 채워졌다. 아이들과 내 마음속에도 작은 만족감이 일었다.

벽화를 그리는 것 외에도 미니올림픽, 인프라투어 등을 즐기며 아이들과 함께 많은 추억을 쌓았다. 아이들은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에서, 반짝이는 햇살에서, 우리가 내민 작은 손에서 행복을 발견할 줄 알았다. ‘빨리 감기’ 중인 필름처럼 정신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던 내게 그 아이들이 주는 여유는 실로 건강한 것이었다.

학교를 떠나는 날, 아이들은 “안녕하세요?”라고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다.

내민 손길을 더욱 따뜻하게
잡아주던 미얀마의 아이들.
7박 9일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
사소한 것들에 대한 감사함 등
아이들에게 배운 것이 훨씬 더 많았다.
순수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을 지닌
아름다운 미얀마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앞으로도 반짝이길 바란다.

글. 삼성물산(상사 무분) 권보현 선임

무관심에서 벅찬 가슴으로, 달라진 나를 만나다

올해 5월쯤 처음 글로벌 봉사활동 지원 모집 메일이 왔을 때, 나는 매일 그랬던 것처럼 메일을 지워버렸다.
“바빠서 신경을 쓸 시간이 없어”라는 자동적인 무관심, 이 반응이 이번 글로벌 봉사와의 첫 만남이었다.
지금 돌아보면 그런 무관심에서 출발한 내가 일주일 간의 가슴 벅찬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와
‘새로운 나’를 만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 뒤 작년에 다녀온 같은 조직의 후배를 통해 우연히 작년 봉사활동의 영상을 보게 됐다. 어린 아이들의 순박하고 맑은 눈망울을 본 순간, 왜인지 모르겠지만 나의 아이들이 생각났다. 또 배려가 사라지고 개인주의가 만연한 지금,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살갑고 정겨운 동네 친구들까지 동시에 떠올랐다. 아마도 이번 봉사활동 지원은 남을 돕는 행동의 따뜻함과 인간미를 다시금 느끼고 싶어하는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나 보다.

그렇게 지원해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필리핀 봉사단에 합격했다. 조별로 마을 시설 공사를 위한 여러 아이템들이 배정됐다. 내심 나는 알량한 욕심에 쉬운 일을 바랐다. 나의 바람과는 완전히 반대로 우리 조는 단원들이 가장 꺼리는 ‘식수탱크 설치’를 하게 됐다.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북사마르 섬에 도착한 뒤 한 시간 반 정도를 더 차를 타고 들어가서야 ‘로페드 베가’ 마을이 나왔다. 처음 우리를 맞이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마치 연예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지만, 곧 식수탱크 설치가 시작됐다.

식수탱크만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기대했던 작업은 ‘식수 탱크만 제외한’ 나머지 공사였다. 삼질은 해 봤지만 그렇게 단시간에 온몸이 땀으로 젖을 정도로 온갖 작업을 해 본 일이 없다. 그래도 스콜성 폭우 속에서 합심한 결과, 2~3일 걸릴 일을 하루 만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가면 만들기’를 앞두고는 기타연주와 필리핀에서도 유명한 ‘아기상어 송’에 맞춘 율동을 준비했다. 초등학교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만난 순간, 어린 시절의 옛 추억이 떠올랐다. 아이들과 함께 우리도 동심으로 돌아간 듯 즐겁게 만들고,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시간을 보냈다.

봉사활동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매너리즘에 빠진 스스로를
다시 한 번 열정에 불타오를 수 있게 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다.
현대제철 사회 공헌팀원들, 플랜 임직원들,
그리고 30명의 봉사단원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글. 현대제철 이상훈 차장



안심하고 학교 가는 길,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요

지난해 나눔 협약식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한 에코글로벌그룹과 소속 배우 다니엘 헤니 홍보대사가 개도국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1억 원을 전달했다. 새단장이 한창인 미얀마 양곤의 달라 지역 학교에 공정환, 동현배 두 홍보대사가 방문했다.



폭염이 지속되는 한국과는 달리, 우기가 시작된 미얀마에는 시원하게 장대비가 내렸다.

공정환, 동현배 홍보대사가 찾아간 달라는 미얀마의 가장 큰 도시인 양곤에 포함돼 있지만, 양곤 강 건너편의 비약적인 발전에 비해 여전히 낙후된 지역이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빈곤선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전반적인 사회 기초 인프라가 열악하다. 달라의 도로는 우기가 되면 곳곳이 침수된다. 우리가 방문한 학교는 심지어 강 근처에 있어, 우기에는 학교 건물에 항상 물이 차면서 침수되기 일쑤다.

이날 무렵까지 물이 찬 도로를 위태롭게 지나 학교에 도착하니 다행히 비가 그쳤다. 그러나 오전에 내린 비가 고여 학교 안 곳곳에 생긴 물 웅덩이가 위험해 보였다. 걱정하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물 웅덩이도 아랑곳하지 않고 뛰놀던 아이들이 반가운 미소로 맞이해줬다.

학교에 들어서자 정문 반대편에는 우리의 지원으로 새롭게 신축되는 건물 부지가 보였다. 3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기초공사가 완료돼 바닥 평탄화 작업이 한창이었다.



4칸의 교실이 될 바닥에 모래를 부어 튼튼한 기초를 만드는 작업이다. 공정환, 동현배 홍보대사는 물론 스태프들까지 모두가 하나로 합쳐진 인간 띠를 만들어 모래를 옮기는 봉사활동에 나섰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무거워지는 모래가 아슬했고 땀은 비 오듯이 흘렸지만, 모두가 함께 하니 끝없이 보이던 평탄화 작업이 마무리됐다. 플랜은 기존에 있던 건물 또한 새로 페인팅을 하고 보수해 아이들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나중에 아이들이 이곳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니 손길이 바빠진다.

곧 아이들은 물 웅덩이로 가득한 길 대신 안전한 진입로를 걸어 매일 등교하고, 우리가 작업한 모래 바닥을 기초 삼아 튼튼하게 탈바꿈한 교실에서 공부하게 된다.

곧게 새 옷을 입은 교실에는 기분 좋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이 기분 좋은 상상이 곧 현실이 될 것을 생각하니 설렘을 감출 수가 없다.

해피무버들과 함께한 오상진의 '해피타임'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청년봉사단 해피무브 발대식에서 명예멘토로 위촉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려 해피무버들을 들뜨게 만들었던 오상진 홍보대사가 인도 첸나이를 찾았다. 과연 오상진 홍보대사의 깜짝 방문이 어느 팀에서 성사될 것인지, 이미 해피무버들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상태였다.



플랜코리아의 오랜 후원자로, 또 홍보대사로 다양한 해외봉사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는 오상진 홍보대사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100여 명의 해피무버들에게 인생에 대한 진지한 상담과 조언을 제공했다. 명예멘토와 해피무버들의 만남은 사전에 취합한 다양한 질문에 답하는 Q&A 시간으로 시작됐다.

현재 읽고 있는 책은 무엇인지, 같은 소속사에 속한 걸그룹의 미모는 어떤지를 묻는 등 재치 넘치는 질문이 많았다. 그러나 역시 진지한 질문과 답변에서 명예멘토로서의 만남이 빛을 발했다.

아직 마냥 어릴 것 같은 해피무버들은 생각보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이들의 고민은 어느 날 큰 성장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 만큼, 오상진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시간에서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열정이 느껴졌다.

오상진 홍보대사의 명예멘토 역할은 격려만으로 끝나지 않고 노력봉사 현장에서도 이어졌다. 100여 명이 4개의 사이트에 나뉘어 일하는 노력봉사 현장을 찾은 오상진 홍보대사는 각 사이트를 일일이 돌며, 노력봉사에 지친 해피무버들을 격려했다. 기초공사 중인 사이트에서는 모래를 나르고 시멘트를 만들어 바닥에 붓는 바닥공사가 한창이었다.

우렁찬 구호로 흥을 돋구는 조, 신나는 음악으로 분위기를 띄운 조, 끊임없는 수다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조, 명예멘토의 방문으로 새 힘을 얻은 조까지 모두 힘을 합쳤다. 개성 있는 4개 조와 오상진 흥

보대사, 스태프들까지 모두 함께 호흡한다는 기분이 드니 일은 힘들어도 젊은 기운이 충전되는 듯했다.

현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시간도 있었다. 놀 거리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 직접 준비해간 DIY장난감 만들기 세트로 아이들과 한 몸, 한 마음이 되어 장난감을 만들었다.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시간이었지만, 오상진 홍보대사 역시 아이들처럼 집중했다. 작은 선물에도 이토록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왠지 방문한 쪽에서 더 큰 선물을 받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오상진 홍보대사가 선사한
만남의 시간은 해피무버들에게
더 없는 추억이 됐다.
가능성만큼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큰 나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고
끝없는 일에 지치기도 쉽다.
그러나 인생 선배의 조언과
격려에 마음이 한없이 따뜻해진
해피무버들은 '해피타임' 한 차례에
한결 더 성장한 모습으로
훈훈함을 안겼다.**



7차례 비행 끝에 만난 아이 영원히 기억될 짧은 시간

“짧지만 영원히 기억될 소중한 추억을 얻었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아도 행복해 보이는 후원 아동의 가족 덕분에
오히려 제가 더 좋은 에너지를 충전한 느낌입니다.
머나먼 곳에 있지만 우리의 인연은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에 행복합니다.”



고대하던 남미 여행과 함께 8년간 인연을 맺어온 볼리비아 산타 크루즈의 후원 아동 마이떼(Maite)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동결연을 8년이나 해 왔지만, 사실 자동이체를 해둔 채 잊고 있을 때가 많을 만큼 무심했습니다. 그럼에도 편지와 사진을 주고받으며 성장을 지켜본 10살 마이떼를 직접 만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남미의 볼리비아 산타크루즈는 워낙 멀기도 하고, 항공 노선 또한 아직 발달하지 않아 한국에서 가려면 적어도 4번의 비행을 해야 합니다. 저의 이번 방문은 남미 여행을 겸하고 있어서, 산타크루즈에 가기 전 몇몇 도시에 들렀기 때문에 7차례의 비행을 거쳐서야 마이떼가 사는 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떼가 살고 있는 엘 토르노(El Torno) 마을은 산타크루즈 시내에서 1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 플랜볼리비아에서 준비해주신 차량으로 이동하며 근처 시장에서의 티타임, 볼리비아 현지식 음료와 간단한 다과도 함께 즐기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네 시골 마을처럼 정겨운 풍경의 엘 토르노 마을에서 유치원과 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플랜볼리비아에서 80%를 투자해 정부와 함께 지은 시설이며, 이 모든 것은 저와 같은 후원자들로 인해 가능한 것이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셔서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다 함께 노래하며 저에게 환영인사를 해 주는 모습 또한 과분한 선물 같은 느낌이었습니니다. 작은 막대 사탕을 아이들에게 나눠준 후 아쉬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이떼가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마이떼의 어머니와 큰 언니, 그리고 마이떼의 어린 조카를 만났습니다. 서투른

볼리비아식 인사를 하는 저의 어설픈 모습에 모두 웃음을 터뜨리며 어색한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이어 선생님께서 마이떼를 부르시자 훌쩍 자라 10살의 꼬마 아가씨가 된 마이떼가 교실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동가정방문이 불가한 플랜 규정상 마이떼의 집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이떼 가족이 다니는 마을의 성당과 강가를 함께 둘러보고, 사진 촬영과 대화,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아쉬움을 달렸습니다.

점심식사가 끝나갈 때쯤 준비한 선물을 마이떼와 가족에게 전달했습니다. 한국식으로 마이떼의 머리를 빗아주고, 저희 엄마께서 준비해주신 전통문양 머리띠를 해 주니 너무나 예뻐했습니다. 마이떼의 가족들이 플라로이드 카메라도 많이 좋아해줘서 무척 기뻐했습니다. 귀여운 마이떼의 조카에게 좀 더 선물 준비를 해주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마이떼의 집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겨우 3시간 정도로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새 정이 든 데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아쉬움에 울컥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재작년쯤 마이떼에게 곧 만나러 가겠다고 편지를 썼는데, 그때부터 마이떼가 어머니께 “언제 오느냐”고 계속 물어보며 기다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마이떼 가족이 선물해주신 손뜨개 꽃과 카드,
함께 먹은 볼리비아식 바비큐 점심,
학교에서 만난 아이들의 눈빛까지 모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좋은 인연과 추억을 만들어주신
플랜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66

제 이름은 데오메티로 입니다.

99

안녕하세요!

저는 동티모르에 살고 있는 10살 데오메티로예요.

부모님은 커피콩을 수확하는 농부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은 부모님과 함께 농장에 간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이를 닦은 뒤

학교에 가기 위해 옷을 입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이에요.

제 꿈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이곳이 우기가 되면 모두 물을 쉽게 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물이 모두 말라버리고 나면, 우리는 물을 구하기 위해서 매우 먼 길을 떠나야 해요.

그런데 플랜이 우리 마을에 학교를 지어주고 수로를 만들어 준 뒤로는
씻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저는 후원 아동이 되어서 매우 행복해요.

후원자님께 편지 쓰는 것도 정말 좋아합니다.

데오메티로의 하루
영상으로 만나기





푸른 꿈의 마을, 알렉산드리아의 변신

척박한 흙빛 마을에서 푸른 꿈이 자라는 곳으로 발전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20년이 넘도록 흘린
플랜의 땀과 후원자님의 사랑 덕분에 이제 더 이상 흙빛이 아니라,
아이들의 웃음과 꿈이 자라는 푸른 마을이 되었습니다.
플랜이 오랜 세월 동안 애쓴 결과,
알렉산드리아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사업장

사업 기간: 1993~2018년

사업장: 사르크 빈민지역 내 8개 지구

후원아동: 1,300명

교육

건강하게 자라고 마음껏 배울 수 있게 됐어요!

“플랜이 시행한 교육에 참여하고 나
서 가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관리할 수
있고, 아이들이 공부할 때 도와줄 수
도 있어서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더
강인해졌고, 엄마로서 자신감도 생겼
어요.” - 27세 어머니

지역학교에 교과서, 책걸상 등 필요한 물
품들을 제공해, 아이들이 더 나은 학습환
경에서 공부하며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
습니다. 또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양육교육, 문해교육을 진행하여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동참여증진교육을
받은 초·중학생 수
1,000명 이상



자녀양육교육을
받은 부모 수
2,000명 이상

아동보호/권리옹호

안전하고 평등한 삶에 한 발 더 가까워졌어요!

“플랜의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아동
권리에 대해 배웠어요. 건강한 음식
을 먹고, 올바르게 옷을 갖춰 입고, 안
전한 환경에서 지내며,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우리들의 권리에 대해서
말이에요!” - 하디르, 12살 아동

장애 아동은 물론, 위험에 상대적으로 노
출되기 쉬운 여자 아이들이 안전하고 평
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재활 및 인식
교육을 실행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 프
로그램과 센터를 통해 소외되고 방치된 거리
아동들을 보호하고 지원했습니다.



장애아동 인지 및
재활활동 참여자 수
약 3,000가정
가정, 장애아동 2,000명,
비장애아동 1,000명



흡연 및 약물
프로그램 참여아동,
가족, 지역주민 수
약 3,000명



직업훈련 및
채용기회를 지원한
청소년 수
약 1,000명



청소년직업교육을
통해 취업한
교육생 비율
80%



5개 지역학교 지원을
계기로 학업에 복귀한
자퇴 여학생 수
약 200명



문맹퇴치교육
수혜자 수
약 2,000명



안전한 환경의 직업
기회를 얻은 아동 수
500명 이상



아동보호센터
(수용시설)의 지원을
받은 거리아동 수
약 1,600명



저축 및 대출 모임 수,
참가자 수
300곳, 약 3,000명



경제활동 인식향상
캠페인에 참가한
남녀청년 수
500명 이상



여성권리인식제고
프로그램 참여주민 수
2,000명 이상

아이들이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플랜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 꿈을 꾸게 된 아이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마워요, 플랜!**

똑똑똑,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페루에 사는 후원아동
루스 사드리 로사리오 리오스 라모스가 쓴 편지를 소개합니다.
K-POP을 사랑하고 방탄소년단의 팬이어서 한국에 관심이 많은
11살 루스는 친구들과 배구를 즐기면서도 뜨개질도 좋아하는
재주 많은 소녀입니다. 후원자님의 건강을 무엇보다 생각하는
사랑스러운 마음이 돋보입니다.

66

안녕하세요!
저는 페루 쿠스코에 사는
루스 사드리 로사리오
리오스 라모스입니다.

99



루스의 편지

보고 싶은 후원자님께
편지와 메모지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후원자님의 선물이 마음에 쏙 들어요.
저는 후원자님의 건강이 더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내드리는 사랑이 후원자님을
곧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 믿어요.

생일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세요?
즐거 들으시는 노래의 가사 좀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참고로 저는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좋아해요.

제 하루 일과를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침 6시에 일찍 일어나서
씻은 뒤에 아침 식사 준비를 돕고, 아침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한 후에 교복으로 갈아입어요.
오전 7시 45분에 학교에 가서 오후 3시까지 공부하고,
점심을 먹고, 숙제를 마친 뒤 밖으로 놀러 나가요.

저는 사촌들과 잘 지내고 있어요. 또 어머니가 저를 사랑으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어머니와도 사이가 좋아요.

사랑하는 후원자님, 저는 후원자님께서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고 있어요.
사랑을 담아 이 그림을 보내드려요.

루스 올림



66

후원자님과 후원아동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편지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후원아동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모든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99



후원자의 답장

사랑하는 루스에게
안녕, 루스,

너와 편지를 주고 받는 것이 나의 하루에
얼마나 활력소가 되는지 아마 넌 짐작하지 못 할거야.
잘 지내고 있고 늘 건강해서 고맙다!
나는 5월 말부터 일주일 이상 크게 아팠어.
지금은 괜찮아.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계기가 됐어.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됐는데,
동료 간호사들 모두 친절해서 기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때마침 적절한 타이밍에
여러 일이 있었던 거지.

루스에게도 무언가 새로운 일이 있었니?
항상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늘 너를 생각하고 있단다.

참, 이번에 내가 근무하는 병동이 바뀌었어.
원래 보던 환자들과 전혀 다른 환자를 돌보게 되어서
다시 새롭게 공부하는 중이야.
가끔 공부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즐겁게 하려고 노력 중이야.



후원아동에게 편지 보내는 방법

- 이메일: letter@plankorea.or.kr
- 우편: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231 H스퀘어 S동 912호 플랜코리아 (우:13494)

* 한글 편지 20일, 영어 편지 25일까지 도착 시 당월 말일 발송합니다. * 편지 선정 시 후원자님께 연락을 드려 공개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 편지가 소개된 후원자님과 후원아동에게는 소정의 The좋은가게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궁금한 이야기 플랜톡



플랜은 언제나 후원자님과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시는 모든 관심이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아동들이 더욱 행복해지는 그 날을 위해
늘 후원자님과 함께 나누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원하게 답변해드릴게요!

Q1. 아동에게 선물로 옷과 신발이나 인형 같은 선물을 보낼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발송이 가능한 품목은 규격 A4사이즈 봉투에 넣을 수 있는 크기이며 두께 3cm 이하인 종이류입니다. 사진, 얇은 노트나 메모지, 스티커, 색종이, 종이 지도 등이 포함됩니다.

무게와 부피가 정해진 규격을 초과할 경우 운송료와 관세를 후원자 부담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발송 진행 여부와 운송료는 후원자님께 개별적으로 사전 안내해드리며, 관세는 선물가격과 운송료에 상관없이 100달러 이상 부과될 수 있습니다. 후원자 부담 발송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보내주신 주소로 반송처리해드리며 반송비 또한 후원자 부담이 됩니다.

아울러 운송료와 관세가 부담되는 후원자님들을 위해 매 연말(10월~12월 중) 꾸러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꾸러미 이벤트 중 발생하는 운송료와 관세는 저희 플랜코리아가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현지사무소와 협력하여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기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정해진 규격을 초과하는 선물 발송은 후원자님의 운송료와 관세 부담이 있을 경우 가능하지만, 꾸러미 이벤트 기간 활용을 추천드립니다.

후원아동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후원자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열악한 운송시스템으로 현지 직원의 택배 수령 및 전달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경사항에 대해 후원자님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선물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 어린이들이 느끼는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Q2. 결연이 종료된 아동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나요?

후원자님께서 편지를 작성하셔서 플랜코리아 사무실로 보내주시는 동안 드물게도 후원아동과의 결연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결연종료가 안내된 후에 마지막으로 편지나 선물을 보내고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동과 가족들이 더 나은 일자리, 학업, 거주지를 위해 플랜사무소가 없는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결연이 종료되었을 때는, 안타깝지만 아동 및 가족들과의 연결이 닿지 않아 편지와 선물 역시 전달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보내주신 편지와 선물은 후원자님에게 안내 후 반송하거나 폐기 처리됩니다.

후원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이 개선되고 자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플랜사무소가 철수하거나 아동이 만 18세가 되어 후원프로그램을 졸업하면서 결연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현지사무소와 협동해 편지 전달 가능 여부를 파악한 뒤 후원자님들께 안내를 드립니다. 편지 전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익월 초에 발송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안타깝게도 반송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연종료 후 편지를 보내고 싶으신 경우, 전화(☎1544-3222) 또는 이메일(letter@plankorea.or.kr) 로 후원자 편지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편지에 마음을 담아
후원 아동과의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우편
일반 편지지 또는 플랜 편지지에 편지를
작성한 후 플랜 사무실로 우편 발송



이메일
이메일로 아동에게 편지를 써서
플랜 이메일 주소로 발송

* 편지 상단에 후원아동번호, 후원아동이름, 후원아동국가, 후원자번호, 후원자이름, 후원자국가를 반드시 영문으로 적어주세요.

* 플랜 편지지는 플랜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 플랜코리아 홈페이지 내 '마이플랜'에서 후원 아동에게 보낸 편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눔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긴 무명 시절 동안 제게 밥을 사주시고
마음을 다독여 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갚기 위해 저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요리를 해 주는 '나래바(BAR)'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위해서도,
가장 저답게 '나래바'와 같은 나눔을
실천하려 합니다.

3년째 플랜코리아와 함께
'꿈의 나라를 펼쳐봐'라는
디제잉 행사를 통해
개도국 아이들의 꿈의 나라가
펼쳐지길 응원하고 있습니다.
'나답게' 나눔을 시작하는 용기로,
플랜코리아에 정기 저금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분명 더 큰 행복도 함께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플랜코리아 홍보대사 박나래

플랜코리아 정기저금하기



플랜코리아
정기저금하기

Step 1

네이버에서 '플랜코리아' 검색 후
박나래 홍보대사의 얼굴을 클릭하여
해피빈으로 이동

Step 2

플랜코리아 정기저금 페이지에서
'함께 저금하기' 클릭하고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Step 3

정기저금으로
소중한 기부문화에 기여
(일시후원도 가능)

※ 정기저금은 최소 1천 원 이상, 매월 둘째 주 월요일에 자동 결제되며 수수료 없이 100% 플랜코리아에 기부됩니다.

Plan Toon

- 3화 -



*매년 '10월 1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자아이의 날입니다. 여자아이의 권리가 인권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플랜은 여아인권신장 캠페인인 'Because I am a girl'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녀들이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얻고, 미래의 리더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동성장보고서를 못 받았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아래 3가지 방법으로 아동성장보고서를 다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앱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2018년 3월 이후 배송된 아동성장보고서는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2015년 이후의 아동성장보고서만 재발송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받기!

정확한 이메일 주소만 알려주시면 아동성장보고서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앱과 홈페이지 내 '마이플랜' 메뉴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받기!

아동성장보고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주소불명(반송), 배송과정 중 분실 등의 이유로 분실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정확한 주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후원아동에 대한 소식은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쉽고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앱 또는 플랜코리아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플랜 > 나의 후원아동

후원자님의 사랑으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며 아동의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소식지를 이메일로 받고, 발송비를 절감해주세요!

소식지를 이메일로 받으시면 인쇄비, 발송비, 주소불명 등으로 발생하는 처리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절감된 비용으로 더 많은 혜택이 후원아동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2019년 봄호 소식부터는 모든 소식지가 이메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 참여 방법 >



홈페이지 마이플랜 로그인
> 회원정보 설정 > 1.기본 정보
> 소식 수신 > (우편물)해제



플랜코리아 앱 로그인
> 설정 > 회원정보 설정 > 1.기본 정보
> 소식 수신 > (우편물)해제

Enjoy Plan

'또 하나의 나, 우리'를 읽는
또 하나의 재미

틀린그림찾기



1 틀린 그림(5개)을 눈에 띄게 표시한 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찰칵!

2 카카오톡에서 '플랜코리아'를 친구 추가한 후,
후원자 번호와 함께 사진 전송!



정답 및 당첨자는 겨울호 소식지에 게재됩니다.

2018 여름호 인조이플랜 당첨자 박시아(대전), 오은비(제주), 안다미(오산), 김유빈(거제), 김현재(창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당첨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 호 정답 >

플랜코리아 소식

플랜코리아,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베트남' 성과 발표 행사 개최



플랜코리아는 베트남 김리엔 호텔에서 IBS(Inclusive Business Solution,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베트남'의 성과 발표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5년부터 베트남에서 진행된 IBS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베트남' 사업의 성과와 교훈을 종합하고, 드림센터 직업교육 모델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 대표 및 건설공업대학 총장이 사업 성공 사례를 발표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코이카, 플랜 인터내셔널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플랜코리아, 효성과 함께 베트남 소외지역 아동 지원



플랜코리아와 효성그룹이 '베트남 소외지역 아동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효성은 베트남 중부 끈동성, 끈플롱 현 150여 명의 아동을 결연후원하고 지역 내 7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 지역은 베트남 중부 산악 지대로 연중 9개월 가량 비가 내리는 열악한 환경에, 주민들은 절대적인 빈곤을 겪고 있다. 이번 결연후원에는 효성그룹 임직원 200여 명이 동참했다.

콘텐츠플래닝과 푸른꿈문화나눔 후원 협약식



플랜코리아가 콘텐츠플래닝과 지역아동센터 아동 문화체험 지원을 위한 '푸른꿈 문화 나눔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플랜코리아는 콘텐츠플래닝과 협약을 맺고,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여름 방학을 맞아 '푸른꿈 문화 나눔 사업 시즌 1'이 진행된다. 방학 중 매주 수요일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친구, 지인, 부모님과 함께 <쉬어매드니스>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다니엘 헤니 홍보대사, 플랜 아너스 클럽 1호 가입



플랜코리아는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클럽 '플랜 아너스클럽'에 다니엘 헤니 홍보대사가 1호 가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플랜코리아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지구촌 아이들을 돕는 다양한 활동에 함께 해온 다니엘 헤니는 소속사인 에코글로벌그룹과 2017년 한해 동안 플랜코리아에 1억여 원을 기부하며 플랜 아너스클럽 등재 자격을 갖게 됐다. 플랜코리아는 플랜 아너스 클럽 첫번째 회원으로 등재한 다니엘 헤니 홍보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아너스 클럽 등재를 축하했다.

플랜코리아, 현대건설 사회공헌 위원회 자문 위원 기관으로 위촉



플랜코리아가 최근 출범한 현대건설 사회공헌위원회의 자문위원기관으로 위촉됐다. 현대건설은 최근 플랜코리아 이상주 대표를 비롯해 현대건설 박두일 경영지원본부장,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이재원 관장, 아이들과미래 재단 김병기 실장, THE CSR 정세우 대표이사 등과 함께 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플랜코리아 측은 그 동안의 해외사업 경험을 인정받아 이번에 자문위원기관으로 위촉됐으며, 앞으로 현대건설 및 타 기관들과의 정기 회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으는 데 힘쓸 예정이다.

플랜코리아 후원자 모니터링단 '플러스' 1기 발족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활동할 플랜코리아 후원자 모니터링단 플러스(Plan of US)가 7월 5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플랜 소개 및 모니터링단 활동 안내 등 오리엔테이션이 이뤄졌으며, 앞으로 월 1회의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활동 보고와 의견 교환을 하게 된다. 또 모니터링단은 후원자가 궁금해 하는 후원자 대상 활동 SNS 포스팅과, 후원자 Q&A 등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일을 하게 된다. 봉사시간 등록 및 The좋은여행, The좋은모임 등 참여시 우대 혜택도 있다.

플랜지구촌 소식

플랜, 롬복 지진 피해자들 위한 국제 사회의 관심 촉구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낳은 인도네시아 롬복 지진으로 해당 지역 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보호와 교육에서 소외된 채 방치돼 있다. 플랜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롬복에서는 지진 이후에도 최소 176건의 여진이 발생해 피해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롬복 북부 지방에서 학교 1,000곳 이상이 지진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 455곳은 심각한 상태다. 이에 플랜 긴급대응요원팀은 피해 지역 아동들과 가족들을 위해 피난 필수 키트를 배분했으며, 이러한 긴급구호 활동에 대한 국제 사회의 많은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파라나 지역 기니 정부에 53개 학교 설립



플랜 인터내셔널은 기니 정부 교육 및 문맹 퇴치부를 통하여 다볼라와 파라나 지역 내 완비 시설을 갖춘 53개의 학교를 기니 정부에 설립했다. 파라나 지역 기초 교육 증진 프로젝트는 독일 기관의 자금 지원과 플랜 인터내셔널의 추진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기니 어린이들을 위한 기초 교육 과정 완수를 목표로 한다. 플랜은 2016년 프로젝트 초반 단계에 이미 다볼라와 딩기레이 지역에 학교 88곳을 설립한 바 있다.

네팔 여성 경제 능력 향상 위한 직업 훈련 교육 지원



플랜은 여성 주도의 사업을 발전시키고 이에 대한 잠재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다양한 여성 단체들을 조직하고 있다. 네팔 서부 외딴 마을의 소수 민족 지역사회에서 자란 자안티는 회의와 단체 활동 및 2달 간의 직업 훈련 코스를 통해 가구와 장식품 만드는 법을 배웠다. 자안티를 비롯한 여성들은 이제 책꽂이, 작은 의자 등 다양한 물품들을 생산해 사업을 펼치며 돈을 벌 기회를 갖게 됐다.

라오스 장애 아동의 교육 받을 권리를 위해 힘쓰다



라오스 북부 한 마을에 사는 낙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됐다. 걷지 못하는 낙은 현실적인 이유로 학교에도 갈 수 없었다. 플랜 인터내셔널은 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회의를 열었고, 낙의 검사와 재활 치료를 도왔다. 최근 낙은 플랜의 지원 구조 협회에서 준 휠체어를 타고 통학하게 됐다. 플랜은 2014년부터 라오스 호운 지역에 있는 41개의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국-멕시코 국경 가족 분리 중단 촉구



플랜 인터내셔널은 미국 행정부의 '무관용' 이민 정책으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강제로 분리시키는 행위를 그만둘 것을 촉구하고 있다. 두 국가의 국경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영양실조, 사회 진출에의 기회 부족, 지카 바이러스, 폭력 및 부패와 함께 수많은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플랜은 아이들의 안전과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이민 정책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 지난 6주간 2,000가구가 강제로 떨어져 살게 됐고, 수천여 명의 아이들이 이미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상황이다.

라이베리아 어린이의 미래를 밝혀준다



2003년 끝난 라이베리아 내전으로 4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게 됐다. 이 때문에 학생들과 어른들이 공부를 하거나 근무할 시간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이에 플랜은 2015년 유럽 연합과 협력하여 라이베리아에 '신뢰할 수 있는 미래의 빛' 프로젝트와 함께 전기 인프라를 재건했다. 플랜은 미니 태양광 발전 그리드 5개를 설치했고, 8,000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24시간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다. 새로 설치된 그리드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기회 개선을 위해 지역 학교, 보건 시설, 가정, 기업에 전력을 공급해주고 있다.

이제 저 자신과 어린 딸을 스스로 돌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캄보디아의 20살 엄마 리암은 10대에 결혼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뒤 1살짜리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꿈꿨지만,
농장 일을 돕느라 일찍 학교를 그만두고
제대로 받은 교육이 없어 막막했습니다.

플랜이 리암에게 재단사가 되기 위한
직업교육 기회를 주었을 때,
리암은 앞뒤 가리지 않고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 여성들에게
교육을 통한 자립의 기회는 물론,
살아갈 의지를 주고자 하는 플랜과 함께해 주세요.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후원으로 어린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원신청서

이름 (한글) (영문) ☐ 남 ☐ 여
연락처 e-mail
주소

해외아동결연후원 (월 3만원)

저는 명의 아동을 후원하고자 합니다.

희망지역 ☐ 가장 도움이 필요한 지역 ☐ 아시아 ☐ 아프리카 ☐ 중남미

성별 ☐ 가장 도움이 필요한 아동 ☐ 남자어린이 ☐ 여자어린이

서신교류언어 ☐ 한국어 ☐ 영어

특별정기후원 (월 만원)

지원분야 ☐ 해외사업 ☐ 국내사업

후원금결제방법

☐ 은행계좌 자동이체 ☐ 신용카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따로 연락을 드려 세부 내용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19호)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상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되며, 회원등록, 소식제공,
연말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동의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14세 미만 아동일 경우(아동 개인정보 수집 보호자 동의) ☐ 동의함

관계 법정대리인 (서명)

후원신청서 작성 후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ID **플랜코리아**로 보내주세요.

후원문의 ☎1544-3222 ✉kno@plankorea.or.kr 🌐www.plankorea.or.kr

 The좋은가게



다양한 색상과 튼튼한 내구성!
플랜 3단 수동 우산 등장!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어 가볍고, 3단으로 접혀 휴대가 편리한 플랜 우산이 출시되었습니다.
우드 손잡이가 클래식함을 더하고, 우산 접이 있어 깔끔한 보관이 가능합니다.
비와 자외선을 막아 줄 가방 속 필수품으로, 단체선물 제작도 가능합니다.

블랙: 15,000원 로즈핑크, 스카이블루, 블루, 오렌지레드, 민트: 18,000원

크기: 55cm+8K(우산살) | 재질: 원단 폴리에스테르 100%/살 알루미늄+FRP/대 알루미늄 | 옵션: 로즈핑크, 스카이블루, 블루, 오렌지레드, 민트, 블랙

< 지금 더좋은가게에서 만나보세요 >

사랑스러운 후원아동을 위한 선물 3종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더좋은가게 상품 수익금은 플랜인터내셔널을 통해
개발도상국 아동들의 환경 개선과 교육 및 보건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플랜 파우치



3D퍼즐



2단 케이크 생일카드



더좋은가게는 단체, 학교, 기업과 함께 협력상품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The좋은가게 www.planshop.co.kr 02.516.5107



지구촌 아이들의 꿈
플랜코리아